

생명나무와 선악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8-9]

밥을 먹다가 돌이 씹히면 뭐라고 하세요? 남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여자들은 무슨 말을 들으셨나요? 제가 많이 들은 말은 “어떻게 밥이 온통 돌투성이야?”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아니, 알아도 말 못해요. 겨우 돌 하나 씹어놓고... 저는 돌이 있으면 돌을 안 씹고 가려내요. 그러나 이빨이 아주 튼튼한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은 그대로 빠자작이에요. 그리고는 “밥이 온통 돌이야!” 그래요.

저는 혼자 말로 그러합니다. ‘아니, 전부 쌀이고 어쩌다 한 개 든 건데?’ 제가 만약에 돌을 씹잖아요, “아니, 괜찮아. 겨우 한 개데 뭐. 돌은 한 개고 온통 밥이잖아. 뭐 하나쯤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밥그릇에 들어가 있는 수 많은 밥알하고 그 사이에 눈에 보일듯 말듯 들어있는 작은 돌 하나 하고 어느 것을 보십니까? 쌀을 봐야죠. 돌이 아무리 많아 봐야 한 두 개죠. 그걸 가지고 “온통 밥이 돌투성이” 라고 하는 것은 빵이 세도 너무 심하다 싶어요. 어쩌다 하나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눈은 잘 하는 것 수십 가지와 못하는 것 하나 중에 어느 것을 더 잘 보나요? 못하는 것만 보세요? 그건 이상한 눈이에요. “이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진짜 없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도 잘 한단데 우리 아이들은 우째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잘 안 하고 농땡이는 치지만 그런 애들이 대체로 건강해요. 밖에 나가서 잘 놀아요. 아니 “공부는 잘 안 해도 참 건강하고 활달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디 댕나나요? 꼭 다리 하나 뽀개서 드러누워야만 직성이 풀리나요?

감사하고 칭찬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찾아서 칭찬하기보다 꼭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하나 집어서 볶아 대고 야단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 하면 좋죠. 다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그 꿈을 빨리 깨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한 학년에 500명이라도 잘 하는 아이는 앞에 조금, 거의 대부분 중간 그리고 못하는 애 뒤에 있잖아요.

꼭 우리 아이만 앞에서 잘 해야 돼요? 공부 잘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모들이 볶아 툰다고 해서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볶다가 성공해서 잘 하는 아이 가끔 있어요. 아이 그렇게 볶아 대다가 반발해서 망치는 아이는 더 많아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죠. 잘 하는 것을 살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참 좋은데 우리 눈엔 그런 게 잘 안 보이니 봐요. 꼭 못하는 것만 눈에 띄어요.

에덴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었나 봐요. 본문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지천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어느 나무를 좋아했어야 할까요? 생명나무를 좋아해서 그 열매만 따 먹고 있었다면 영원히 살았을지 몰라요. 설령 그것 아니라도 주변에 지천으로 팔려 있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따 먹고 살았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보느냐 말이에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다른 시간에 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지나갑시다. 냉장고에 과일을 잔뜩 갖다 뒀어요. “이것만 손 대지마, 먹으면 위험해.” 그러고 엄마가 나갔어요. 아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지천으로 팔려 있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주목을 했느냐? 이게 비극의 시초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보다 생명을 건져내게 하는 생명나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눈은 고장 났어요. 그래서 항상 눈에 선악과가 잘 보여요. 이게 옳느냐? 그르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

만 살피는 눈이 되어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아담이 물려준 이 눈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를 세울지, 좋은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야단치는 것은 참 쉽죠. 연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그러나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인을 칭찬하거나 남편을 칭찬해야 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을 생각해 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자기가 문제일까요? 칭찬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해도 칭찬할 건수는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볼 줄 모르는 내가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아주 옛날에 집사람과 싸울 일이 있어서 싸우다가 싸움을 그만 두어야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 궁리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잠시 스톱!’ 그래 놓고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본적이 어디야?” 하고 물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라고 시집을 때까지 있었던 주소는 대구시 북구 노원동 1645번지예요. 그런데 “포항시 덕산동 236번지” 그러잖아요. 그건 제 본적이에요. “에이, 그만하자. 자기 본적을 버리고 내 본적을 자기 본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냐?” 그래서 끝냈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혼자서 많이 웃었어요. ‘야, 내 머리 좋다. 어떻게 기발한 생각을 해서 싸움을 중지시키고 끝내다니!’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후배 녀석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대요. 그날 저녁에 부인에게 “당신 본적 어디야?” 했더니 친정 본적이 나오더라요.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웠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본적을 물었을 때는 무슨 답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거야. 사전에 그 정도 준비 없이 느닷없이 물었으니깐 그런 거지. 아무거나 따라 하는 것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야단을 칠 때 치더라도 어떻게 칭찬할 건수를 찾노라면 뭔가가 나와도 나와요. 옳고 그름을 찾기보다 어떻게 이 사람을 세워 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천으로 깔려 있는 그 많은 열매를 다 제쳐놓고 엉뚱하게 선악과를 주목하다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안다면 아담처럼 그 선악과에 주목을 할 겁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잠시 미루어 두고, 이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을 가려서 징계하기보다 오래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따 먹어 버렸어요. 끝나야 되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불러들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셔도 심판 가운데에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한 방에 끝내 버리시지 왜 120년씩이나 기다리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세월 노아에게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왜 노아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없어져라 했다가 말씀으로 다시 만들면 간단한데 그리 아니하시고 홍수를 동원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 엄청난 배를 만들게 하시고... 이유는 간단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권더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10명도 처음부터 10명이 아니죠. 처음 50명에서 아브라함이 파고 파고 파아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참고 참

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은 잘 아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의인 몇 명이 필요하죠? 1명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해 버렸습니다. 용서할 건수가 조금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는 분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여러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벌을 풀이키기도 하시고 취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예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항하고 반역하니 “내가 같이 가다가는 핏길에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염려가 있으니 나 안 가겠다. 너희끼리 가거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빌어요. “그래도 하나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이긴 척 하시고 또 같이 가시죠. 이들이 행한 행위를 선악을 따진다면 12번도 더 멸하고도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끌고 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잠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때만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선악을 가려서 징계하기보다는 오래오래 참아서 회개하고 기다리는 백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형제를 세워 주려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잘잘못을 따지고 가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제자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데리고 가요. 마지막 결정타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 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혼자 그런 게 아니예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 때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배신자가 돼요.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 놓고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마음이 찢리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따졌다면 제자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못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씩 둘씩 다 불러 모아서 결국은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요. 선악으로 사리분별을 따지는 데 아주 익숙하고 그렇게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전부 깨버렸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길가에 있는 이 소경이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라는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이것부터 따져요. 이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면 그 집안에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 사항이 아니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악을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 가운데에 “너, 이만큼 선한 인간이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만한 인간이 우리 사이에는 없어요. 선악을 따

저보고 가치 판단을 해보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도 전혀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보잘 것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 하고 못하는 것만 따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탕감 받는 이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님이 신하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 2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옥에 쳐 넣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충 잡아서 4억~5억쯤 됩니다. 만 달란트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걸 탕감해 줬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 요즈음 돈으로 환산하면 약 2, 3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자기가 용서 받은 돈은 계산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걸 면제 받은 사람이 몇 천만원 안 갚는다고 옥에 쳐 넣은 사람을 임금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비유에 왜 1만 달란트가 등장 하느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사람은 돈 얘기를 해도 자기수준과 비슷한 액수만 얘기하는 법입니다. 큰 돈 만져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큰 돈 얘기 안 해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께 세배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만원짜리를 주니까 “이것 말고 돈 줘!” 했어요. 개가 말한 돈은 무엇일까요?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그걸로 고래밥 사먹어요. 애는 고래밥 사먹을 수 있는 500원 짜리가 돈이에요. 사람은 돈을 말할 때도 자기가 아는 액수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한번 씩 가는 필리핀 현지 교회에서 가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정말 딱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우리 용돈 정도의 돈밖에 안돼요. 그 정도의 돈이라도 거기에서는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요. “그 정도 같으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거기에서는 큰 돈인데 저한테는 용돈 정도의 수준이니깐 한 달 용돈 없는 셈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만져 보셨길래 1만 달란트라고 하십니까? 1달란트가 5억이면 1만 달란트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큰 돈 이야기를 했을까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녀석이 나한테 진 빚을 돈으로 환산하면 천만원이나 될까요? 물론 천만 원도 크긴 크죠. 문제는 내가 탕감 받은 액수가 너무 너무 크다는 거죠.

선악을 따지는 일보다는 생명을 살리거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계시록 끝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나무가 부지기수입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달마다 과실을 맺고 잎사귀마저도 사람을 살리는 데에 쓰여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나무 가운데 선악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이 사랑이 사람을 살려요. 자녀를 대하거나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혹시 야단을 쳐야 할 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매를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마음도 없이 그냥 미워한다고만 생각할 때 매를 들면 독약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사랑해 주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걸리지만 바른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이 무엇을 해도 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 너무 강요하지 말고 봐주세요. 1등은 항상

1명밖에 없어요. 2등은 몇 명이죠? 2명이라고 하지 마세요. 2등도 1명이에요. 3등도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학기 초에 1등 한 아이가 1년 내내 1등해요. 간혹 1등이 2등 되고 2등이 1등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뒤집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면 제 할 만큼 합니다.

아이 키울 때는 그렇다고 합시다. 돈 못 벌어오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달을 이것 갖고 어떻게 살아요? 돈 좀 더 벌어 오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목사 사모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돈 더 벌 능력 없는 사람한테 돈 더 벌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책망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격려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칭찬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 자녀들, 아니면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나는 왜 이리 못살까? 나는 하는 일 마다 왜 이리 안 될까? 하는 분 계세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자꾸 그것만 봐요?

해도 안 되는 것은 오래 있게 마련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 이것 잘 하네! 이번에 이것은 실패했지만 저것은 잘 할 수 있어!’ 잘 하는 쪽을 보고 그 쪽을 계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차라리 공주병, 왕자 병이 나아요. 이쁘지도 않으면서 이쁜짓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이야 뭐라고 하던 제 눈에 이쁘다고 하는 게 ‘난 왜 이리 못났을까?’ 하는 것보다 백번 나아요.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항상 긍정적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마음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행동으로는 안 되더라.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워요. 술 담배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몸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냐?

사람이 참 희한한 존재라는 게,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뇌물인줄 모르고 받았냐? 그냥 선물인줄 알고 받았냐? 그냥 인사인줄 알았냐? 진짜 뇌물인줄 모르고 받았을까요?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받아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고질적인 병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악과 보다는 생명나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많은 은사를 말하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 안에 이런 저런 은사가 참 많이 있다고 꼭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답 다 가르쳐 드린 셈이에요. 바울의 이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잖아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면서 이어지는 것이 사랑장이예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 위에 더 좋은 것이 사랑하는 은사예요. 가장 큰 것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잘했고 따지는 은사보다 사랑하는 은사가 가장 큰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적이 좋은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은 어디 가서 대회 입상을 했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선생님에게 진짜 고맙다는 말은 잘 안 해요. 머리는 뛰어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아이들이예요. 이것이 인생을 참 슬프게 만들어요. 제가 있던 **에 **공대가 있어요. 학부 학생들,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전도해도 절대로 안 나와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재들이 저렇게 콧대 높고 저러고 버티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다 깨질 건데...” 개들은 몰라요. 그래서 대학생들 전도하다보면 대학생은 안 달려오고 대학원생들이 달려 와요. 머리 좋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뛰어나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전혀 복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을 세워 주려고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능력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할 때에도 항상 앞세워야 될 것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혹시 못하는 사람을 보면 비판도 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은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묻어두고 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일꾼들은 항상 적어요. 어느 해 성탄절에 교회 장식한다고 했는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누가 며칠 전에 와서 어쨌든 좀 해놔요. 제가 보니까 썩 잘하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어느 놈이 이 따위로 해 놔?” 수고했던 장본인이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잘하거든 지가 좀 하지.’ 하지는 않고 남 해놓은 것 야단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솜씨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게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리 했다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수고 많이 했겠네요.” 이 정도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곁에 있는 형제나 가족은 전부 사랑의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교육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신혼부부들은 결혼하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이 때 이겨야 평생 편하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질을 잘 들여서 평생 편하게 데리고 있어야 할 배우자다? 아니에요!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라고 맡겨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단치고 책망한다고 사람이 바로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잠시 물어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요.

선악과에 너무 관심두지 말고 생명나무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그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믿음의 식구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